

전남 '만취' 폭력사범 4년간 3476명

최근 4년 간 전남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폭력을 행사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지역 폭력사범 1만2687명(연평균 검거인원) 가운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3476명(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374명(연평균) 중 술에 취해 범행한 이들은 66.2%로 집계됐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남지역 폭력사범 검거 인원은 2014년 1만3481명, 2015년 1만

공무집행방해 검거자 중 66.2% 술 취해 범행 전남경찰청, 내달 17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4025명, 2016년 1만4017명, 2017년 11월 기준 9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인원은 2014년 3584명, 2015년 3444명, 2016년 3360명, 2017년 11월 기준 3180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이들은 2014년 408명(술 취해 범행 282명), 2015년 346명(252명), 2016년 404명(243명), 2017년 11월 기준

336명(212명)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술에 취해 범행하는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만취상태에서 영세상인·주민·노인·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이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전남경찰청은 또 주민에게 상습 폭행·갈취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 의료진에 행패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관에게 폭력·폭언·협박을 일삼은 이들에게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주취 폭력 등으로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귀가 여성 금품 빼앗고 성폭행하려던 2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야간시간대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께 사이 광주 광산구 한 철길 주변에서 B(23·여)씨의 손가방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일주일 전 출소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 지하철역에서 철길 주변까지 약 1~2km가량 B씨를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몸싸움하는 과정에 B씨와 함께 발로 굴러떨어졌으며,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도주했으며, 이날 자정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고흥 적대봉 불 18시간만에 진화...0.2ha 소실

고흥군 적대봉에서 불이 나 산림 0.2ha가 탔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51분께 고흥군 금산면 적대봉에서 불이 나 18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에 진화됐다.

이 불로 산림 0.2ha가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진화 작업에는 산림·임차 헬기 3대, 산불진화차 9대, 공무원과 소방대원 120여명이 투입됐다.

야간시간대 화재가 발생했다 산 곳곳에 돌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산림당국은 설명했다.

산림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적대봉은 592.2m 높이로 정상에서 완도·거문도·여수의 바다·섬들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한파속 길잃은 치매노인 경찰구조

길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던 8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수색 끝에 하루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에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주택에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최모(81)씨가 외출했다.

최씨의 아내(80)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사이 남편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는 13일 오후 5시40분께 용봉동 전남대 후문 체육공원 쪽을 지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던 14일 오후 5시10분께 서구 광천동 빗고을로 대로변을 지나다 벤치에 움츠린 채 앉아 있던 최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탈진에 가까운 상태였던 최씨를 응급 조치 뒤 가족에 인계했다.

'타이어 빼들려 도박' 금호타이어 전 간부 구속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타이어 수천 개를 빼들려 온 타이어생산업체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타이어 수천 개를 빼들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로 금호타이어 전직 간부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빼들린 타이어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지역 모 신업단지 타이어 관련업체 사장 B(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생산한 대형트럭·화물차 전용 타이어 8900개(26억원 상당·1개당 25만~47만원)를 빼들려 21여명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광주지법, 분양 사기 시행사대표에 무등록 대부업 4명 항소 기각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오피스텔 이종분양 사기사건의 시행사 대표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0) 씨 등 4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1년~2015년 사이 농성동 오피스텔 이종분양 사기 사건의 시행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수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농성동 오피스텔 이종분양 사기 사건의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겨요~비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독성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태양광 사업 정보·편의 대가...이권 챙긴 한전 간부 입건

광주지법 "도주 우려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영장 기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고위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고위 간부 A(5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선로 용량 등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99kW 태양광발전기 3대(대당 시가

1억8000만~2억5000만원)를 900여만원 짜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매입하려는 토지의 선로 유무와 전기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면 다른 사업자보다 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9kW 태양광발전기는 1대 당 월 180만~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B(53·4급)씨를 구속하고 간부 C(57·2급)씨와 직원 D(57·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신봉우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